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http://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1월 18일

제06-01호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이홍식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hslee@kiep.go.kr, Tel; 3460-1200)

이창수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위원 (cslee@kiep.go.kr, Tel; 3460-1065)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 주요 내용

- 한·미 FTA는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안보적인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연산(CGЕ) 모형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실질 GDP는 0.42~1.99%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0.61~1.73% 증가하며 교역,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한·칠레 FTA, 쌀협상 등과는 달리 한·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 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내정치 상황 등으로 협상이 중도 좌초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1.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함.

\* 한국산 미국수입시장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1-10) 2.6

\* 대미 수출('05.1-10, %): (한국)△5.0 (일본)7.2 (중국)25.7 (대만)0.7 (인도)19.2

-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 → 해외차입 활성화 → 국내투자확대의 효과 발생

-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東北亞 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94년)와 싱가포르('03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 미국의 대멕시코 FDI: 연평균 27억 달러('84~'93) → 연평균 132억 달러('94~'02)

\* 미국의 대싱가포르 FDI: 5.3억 달러('02년) → 66억 달러('04년)

-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즉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함.
  -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
  
- **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됨.

  - 한·미 FTA 및 한·ASEAN FTA가 조기에 완성될 경우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2.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가.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실질 GDP는 0.42~1.99% 증가(금액기준 29억~135억 달러)하고 후생수준은 0.61~1.73% 증가(금액기준 24억~68억 달러)할 것으로 기대됨.

- 대미수출 및 생산의 경우 각각 12.1~15.1%, 0.61~1.94%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총고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약 42~5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표 1. 한·미 FTA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기(정태) 효과 <sup>1)</sup>	중장기(동태) 효과 <sup>1)</sup>
실질 GDP		0.42% (29억 달러 증가)	1.99% (135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sup>2)</sup>		0.61% (24억 달러 증가)	1.73% (68억 달러 증가)
교역	대미 수출	12.1% (54억 달러 증가)	15.1% (71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29.1% (96억 달러 증가)	39.4% (122억 달러 증가)
	대미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 달러 흑자 감소
생산		0.61% (8.5조 원 증가)	1.94% (27.0조 원 증가)
고용		- 0.51% (85천 명 감소)	0.63% (104천 명 증가)

주: 1) 2004년 실적치 기준임.

2)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잉여 증가 및 생산자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생산자잉여 증가의 합임.

3)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공산품의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80%, 미국은 100% 개방, 서비스 교역장벽 20% 완화를 가정함.

4) 중장기(동태)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증대로 인한 자본축적 효과를 감안함.

나.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

1)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

- 한·미 FTA가 체결되어 서비스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될 경우 서비스 전체의 총생산이 9.4조~15.9조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171.2천~288.7천명 증가하며 교역량은 73.7억~7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은 17.9억~18.0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진출에 따른 생산 확대, 국내 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 확대 등 국내 서비스시장의 경쟁력 및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장기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한·미 FTA가 한국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기(정태) 효과	중장기(동태) 효과
교역	대미 수출	4.0% (27.9억 달러 증가)	4.3% (28.2억 달러 증가)
	대미 수입	9.6% (45.8억 달러 증가)	10.0% (46.2억 달러 증가)
	대미 무역수지	17.9억 달러 악화	18.0억 달러 악화
생산		9.4조원 증가	15.9조원 증가
고용		171.2천명 증가	288.7천명 증가

주: 1)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서비스 교역장벽 20% 인하, 공산품의 완전개방, 농산물의 경우 한국 80%, 미국 100% 관세철폐를 가정함.  
 2) 서비스 부문 관세상당치를 이용하여 GTAP DB를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임.

2)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 한·미 FTA가 체결되어 양국간에 공산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단기에 3조 3천억원, 장기에 18조 7천억원 증가하며, 고용은 단기에 약 4만 명, 장기적으로는 약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대세계 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표 3. 한·미 FTA가 한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단기(정태) 효과	중장기(동태) 효과
생 산	0.79% (3조 3천억원 증가)	4.53% (18조 7천억원)
고 용	1.27% (40.4천명 증가)	6.52% (208.1천명 증가)

주: 1) 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전품목 관세의 즉시 철폐, 불안전고용의 존재, 원활한 노동공급을 가정함.

3) 농업에 미치는 효과<sup>1)</sup>

-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결과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쌀 양허 제외, 곡물류 50% 관세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은 약 2조원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표 4. 한·미 FTA가 한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생산변화		대미수입변화	
	생산변화(억 원)	변화율(%)	수입변화(억 원)	변화율(%)
곡물류	-3,545	-12.4	9,266	169
과일, 채소류, 견과류	-3,628	-4.0	2,154	199
축산물	-7,835	-6.4	6,659	51
우유 및 낙농제품	-2,042	-4.6	1,620	514
<b>계</b>	<b>-20,888</b>	<b>-6.2</b>	<b>19,699</b>	<b>189</b>

주: 1) CGE 모형 분석중 자본축적과정은 고려되지 않은 정태분석임.

2) GTAP 2001 D/B를 활용하였으며, 증감율은 2001년 대비 증감률임.

3) 농산물을 4개 품목군(곡물, 과일·채소·견과류, 축산물, 우유·낙농)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공농산물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곡물류 50% 관세 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를 가정하였고 미국은 농산물의 전품목에 대한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함.

1)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분석하였음.

### 3.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 가. 산업정책적 측면

-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농업의 경우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수입증가로 인한 대규모 농산물 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위축이 우려됨.
- 서비스업의 급격한 전면 개방시 경쟁력 취약업종의 타격이 예상되며, 전반적 비교열위로 인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비교우위산업에만 특화하게 될 경우 향후 성장 가능 산업의 발전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정밀화학품 및 정밀기계 등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 나. 피해예상 부문의 반발

- 한·칠레 FTA, 쌀협상 등과는 달리 한·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미 FTA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됨.
- 특히 미국측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요청에 의해 국내 규범, 제도, 정책, 관행까지 단기간 내에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 사회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발 또는 혼란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음.
- 한·칠레 FTA, 쌀협상 등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합의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FTA의 혜택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지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다. 향후 협상일정

- 미국 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TPA) 시한(2007년 6월 말)<sup>2)</sup>으로 미루어볼 때 한·미 FTA 협상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측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내정치 상황 등으로 협상이 중도 좌초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2) 미국의 TPA 규정상 FTA 서명 90일 전 의회 통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협상기한은 2007년 3월까지임.